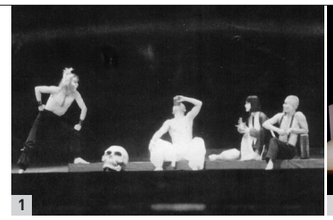
# 연극인 황윤동의 외침 “우리가 가는 길이 역사다”

김용원 | 구미 연극협회 협회장

**젊은 예술가 시리즈** 22

**연극인 황윤동**


1

2

그를 처음 만난 것은 90년도 초 금오공대의 연극 동아리 〈불모지대〉에서이다. 유난히 재주꾼들이 많고 붙임성 있던 그의 동기들에 비해 그는 그들의 공연 무대에서도 참하고 얌전해서 전혀 두드러지지 않았다. 늘 생각이 많고 조용하던 그가 주연으로 오르는 무대는 오히려 연극이 아니라 시위 현장인 경우가 많았다

3

4

1 경북 연극제를 석권한 〈구미레파토리〉의 「꺽다거」 공연 장면
2 황윤동의 첫 연출작 「남자충동」 공연 장면
3 〈구미레파토리〉 소극장 공터 - DA 앞에서 활짝 웃고 서 있는 황윤동 씨
4 첫 연출작 「남자 충동」 공연을 마치고 극단 식구들과 함께.

**지역 연극의 새로운 가능성과 미래 연 황윤동**

그는 배우요 연출가이자 극단 구미레파토리 대표이며 소극장 공터-DA 극장장이다

삼십대 초반의 나이에, 잘 나가는 스타들 여럿을 섞어 놓은 듯한 외모의 미소년 같아 보이는 그를 나타내는 수식어치고는 자못 화려하다.

그는 세대와 장르를 가리지 않고 많은 지역 예술계의 어른들과 동료들의 관심과 사랑을 늘 받고 있다. 본인은 그것을 부담으로 여기는지 창작의 자극제로 여기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러한 사랑과 관심은 그의 위치와 그에게 거는 기대치를 잘 나타낸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한 가지 전제를 할 게 있는데 그것은 이 지면이 갖는 기획의도를 제대로 살리려면 그에게 확대경을 들이대거나 또는 엄정한 저울눈으로 그가 가진 재능과 가능성들을 해부해야 옳다고 보이나 필자가 이 글을 쓰는 한은 그 기대에 부응할 수는 없을 듯하다.

왜 하필이면 평론가들이나 학계의 선배님들이 그를 제대로 소개시켜 줄 좋은 기회를 마다하고 그와 한솥밥으로 고락을 함께하는 필자가 나섰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의 상상과는 많이 다른 지역에서의 연극하기와 연극으로 밥 먹기의 고단함을 들여다보고 지역 연극과 연극인의 현주소를 가늠해 보는 것도 깊은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며 이러한 의도로 인하여 그의 공고한 기량과 곧은 정신이 폄하되는 일 따윈 없을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이다.

힘들다는 말이 지나치게 상투적으로 들릴 정도로 누구나 아는 힘겨움인 것 같아도 그 힘겨움의 내면은 지역 연극인들의 경우는 달라도 많이 다르다. 중앙에서 활동하는 연극인들의 경우에도 말할 수 없을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겠지만 모든 기반과 이해와 자원의 부족에서 오는 지역 예술인들만의 고통은 깊고도 넓다.

그 이유는  지역적 특성과 지방 정부의 의지가 갖는 수많은 변수와도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며, 그를 알기 위하여 또는 그가 왜 그토록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지를 알기 위하여는 그가 활동하는 땅이며 그가 그토록 문화의 중심으로 만들기를 소망하는, 아직은 문화의 변방 구미에 대하여 알 필요가 있을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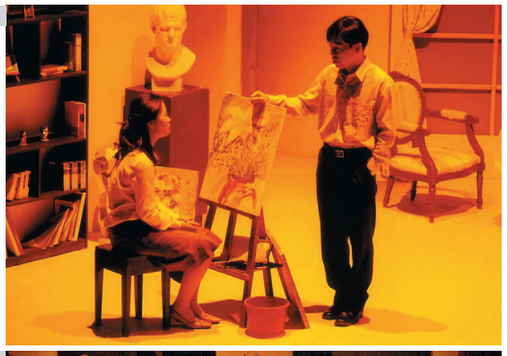
인구 37만 명, 올해 수출 목표 310억 불(이 수치가 쉽게 이해가 안 가는 분을 위하여 부기하자면 310억 불은 대구의 20배, 부산의 6배에 해당한다.), 평균나이 29세, 첨단의 휴대폰과 컴퓨터용 액정이 주요 수출품이며 유서 깊은 영남의 본향 선산군과 우리나라 최대의 내륙 공단 구미를 통합한 도농 복합 도시이다.

인구는 날로 늘어나고 있고, 시민의 소득은 매우 높은 편이다. 이 정도 수치면 매양 알토란일 것만 같아 보인다. 그러나  이 도시에도 깊은 그늘이 있다. 시민들의 정주의식(定住意識)이 매우 낮으며 그 이유로 교육기반과 문화적 환경의 결여를 들고 있다. 또한 이점은 고급의 두뇌를 유치하는 데도 큰 걸림돌로 작용하여 이곳에 사업장을 둔 회사들이 어떻게든 수도권으로 투자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 이유의 하나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의 강력한 요구와 행정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문화적 발전 속도나 문화예술의

그는 지금도 소년 같은 표정으로 말한다.
방식이 변화하였을 뿐 그 궁극의 목표는 오히려 확대되고
심화되어 연극을 통하여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꿈을 꾸노라고.
그만큼 그는 연극과는 따로 떼어놓고 말할 수 없을 만치
연극에만 전력 투구하는 진정한 연극인이다.

1



2

3

**1** 2004년 4월 연출작 「압구정」 공연 장면
**2** 2003년 12월 연출작 「불 좀 꺼 주세요」 공연 장면
**3** 연극 「마술가게」 공연 장면
**4** 소극장 공터 - DA 객석에서, 황윤동 씨

생산자들의 의식이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게 큰 문제점으로 보인다. 또한 행정과 생산의 접점을 찾고 매개하여야 할 일부의 문화 단체 마저도 헤게모니에 함몰되는 상황을 연출하며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이 고민의 지점을 드러내고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일에 지역의 연극인들이 앞장 서 왔고 그 중심에 항상 그가 존재하여 왔다.

문제점을 문제점 자체로 인지하는 일은 누구나 하는 일이지만 대안을 내놓고 실천하는 일은 누구나 마음만 있다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필자가 한 연극인의 개인의 성취와는 별개로 그를 높이 사는 데는 그의 그러한 능력을 알고 실천력을 잘 알기 때문이다.

## 느낌, 극락 같은 그와의 만남

필자가 그를 처음 만난 것은 1990년도 초 금오공대의 연극동아리 불모지대에서이다. 유난히 재주꾼들이 많고 붙임성 있던 그의 동기들에 비해 그는 그들의 공연 무대에서도 참하고 얌전해서 전혀 두드러지지 않았다. 늘 생각이 많고 조용하던 그가 주연으로 오르는 무대는 오히려 연극이 아니라 시위 현장인 경우가 많았다.

당시 지역의 연극계에 수천 시위대를 이끌며 포효하던 그의 무용담이 들려왔고 그것이 연습 현장의 신명으로 이어지곤 했다. 그것이 당시 그가 꾸는 꿈과 세상이 만나는 방식이었다.

그가 다 늦게 입대하였다는 소식을 듣고도 몇 번의 계절이 바뀐 어느 날, 짧은 머리로 극단의 문을 밀고 들어선 그의 눈은 연극에의 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최전방의 수색대에서도 연극만 생각했노라, 시위 주동자의경력 때문에 더욱 힘들던 군대 생활 내내 틈만 나면 연극 책을 보고 무대만을 꿈꾸었노라고 고백했다.

그는 지금도 소년 같은 표정으로 말한다. 방식이 변화하였을 뿐 그 궁극의 목표는  오히려 확대되고 심화되어 연극을 통하여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꿈을 꾸노라고.

그 후 그는 연극과는 따로 떼어놓고 말할 수 없을 만치 연극에만 전력 투구하게 된다. 그가 본격적으로 극단에 합류하여 공연한 첫 작품이 「느낌, 극락 같은」이다. 경북연극제에 출품되었던 이 작품은 기존의 작품과는 달리 양식적 실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노작이었는데, 그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그에 얽힌 일이다.

당시 심사 위원장으로 권오일 선생이 오셨는데 선생의 그에 대한 평가는 "삼박자가 부족하다"였다.

선생은 오랜만에 쓸만한 놈 하나 발견하신 반가움에 더욱 정진하라는 의도의 말씀이었던 듯한데 그는 마음의 상처가 제법 컸던 것 같다.

이후 늘 고민하고 늘 노력하고 정진하여 지난해 전국연극제에서는 선생을 파안대소케 하기도 했다. 선생은 스스로 눈 밝으신 것과 그의 성장을 진정으로 기뻐하셨으리라.

## 통합 극단 〈구미레파토리〉

이후 지역 내의 극단을 통합하는 데 골몰하던 필자를 도와 지역 내 3개 극단의 통합을 이루어 내었다. 당시 IMF로 모든 경제 사정이 공황상태에 빠진 이후 지역 내 모든 극단들은 빈사 상태에 빠져 극단으로서의 제 기능을 못하는 지경이었다.

오로지 사느냐 죽느냐의 절박한 상황에서 공멸(共滅)하느니 어려운 시기를 함께 넘기자는 의미로 통합의 가능성을 상호 타진하던 중이었다. 무수한 이해의 충돌과 이질적인 문화를 극복하고 진정한 통합을 이루기까지 그가 보인 협상과 조정의 능력은 통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통합 이후의 여러 후유증을 극복하고 오늘날의 성장 일로의 극단으로 거듭나는 데에도 주춧돌을 놓는 역할을 해내게 된다. 극단 통합으로 힘을 얻은 통합 극단인 〈구미레파토리〉는 최현묵 작 「끽다거 喫茶去」로 경북 연극제를 석권하며 지역 극단과 연극인의 건제함을 과시하게 된다. 맨몸의 등에 마(麻)자를 크게 쓰고 희게 탈색한 긴 머리를 정수리에 질끈 동여매고는 무거운 술독을 들고 땀을 뻘뻘 흘리며  우스꽝스럽게  무대를 달리던 그의 모습은 무대를 진정 열망하는 싱싱하고 진정한 연극인의 모습으로, 무대를 함께 지켜갈 속 깊은 동지의 모습으로 영원히 남아 있다. 통합을 하였다 하여도 극단의 모든 재정적 어려움이나 환경들이 모두 해결된 것이 아니어서 그 이후로도 수많은 어려움을 필자와 그가 함께 넘겨왔는데 그 많은 역경 중 이것 하나만큼은 꼭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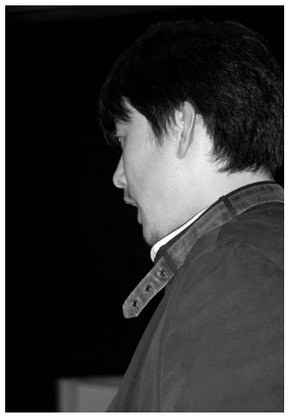
사무실을 무상으로 빌려주시던 후원자의 사업상 어려움으로 급히 사무실을 비워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생겼다. 당시 극단 대표를 맡고 있던 필자는 통합 이전부터 연극 작업과 극단 운영의 고정비용으로 쓰던 돈이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식으로 점점 재정력이 약해져 사무실을 줄이다 못해 그 후원자의 도움을 받던 중이었다. 며칠을 온 시내와 외곽지 할것없이 훑고 다녔지만 우리가 가진 돈으로는 누구도 공간을 내어줄 곳은 없었다.

고속도로 확장 공사장의 레미콘 공장 한구석을 빌려 극단의 모든 짐들을 보관하여두고는 문자 그대로 유랑 극단 신세가 된 것이다. 그때 그의 역할이 없었다면 아마도 극단은 깨어지고 단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을지도 모른다. 모임 정도야 누군가의 집에서 하면 된다 해도 작품을 연습할 공간이 없는 데다 임시로라도 빌려줄 곳도 없는 실정이었다. 부도난 상가의 쓰레기 더미를 단원들과 함께 어렵게 치우고는 벌판 같은 장소에서 맘졸이며 도둑

그의 올해 목표는 유급 단원을 최소한 세 명까지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
그는 비전을 제시할 줄 아는 대표이고 단원들은 그런 그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낸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이루는 법을 알고 있다.
그게 그들의 장점이다. 오늘도 그의 목소리가 극장을 울린다.
"우리가 가는 길이 역사다."

전기를 당겨쓰며 밤새 작품 연습을 하여야만 했고, 한번은 고맙게 장소를 빌렸는데 그곳은 다름 아닌 매우 매출이 저조한 다단계회사의 사무실이어서 단원들 모두에게 눈칫밥을 먹이는 고약한 신세가 되기도 했다.

그런다고 누가 알아주거나 점점 좋아질 보장도 없는 실로 막막하기만 한 힘들던 그 시기, 의기 소침한 단원들을 일일이 챙기는 일 하며, 장소 주인들의 비위 맞추기에, 극단과 구미 연극협회의 사무국 업무까지 해내며 그야말로 동분서주, 버팀목 역할을 해내게 된다. 그런 어려움 중에도 극단의 공연과 연극제의 참가, 쌈짓돈을 헐어서 청소년 연극제를 치러내었다.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극단이 기대고 안정적으로 작품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관극 회원과 후원회원 확보에 골몰하는 한편 극단의 소식지를 발간하는 일도 그의 몫이었다.


연극 지도를 하는 황윤동 씨

다시금 지하 공간을 얻어 극단이 안착한 후, 필자에게 배턴을 받아 극단의 대표직을 맡은 그는 단원들과 함께 이 지역에선 누구도 해내지 못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극장의 설립이다. 소극장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뜻 있는 예술인들이 하나둘 동참하여 현재 소극장이 위치한 건물은 그야말로 종합 아트 타운을 형성하고 DA 아트센터라 명명되었다. 소극장, 윈도우 갤러리, 초대전 전용의 갤러리, 건축사, 분장연구소, 조형 연구소, 미술 아카데미가 한데 어우러져 시너지의 극대화를 꾀하고 있다.

그는 아트센터 전체의 방향과는 별개로 극장의 운영방향에 확실한 자기 철학을 가지고 있다. 극장의 문턱을 한없이 낮추는 것과 공익적인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극장을 필요로 하는 많은 이에게 기회를 주고 많은 것들을 자유롭게 실험하여 지역 문화 예술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게 하나이며, 여러 가지 이유로 공연장 진입이 힘들었던 비영리성 단체의 공연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문화적 토양을 튼튼히 하는 것이 두 번째의 역할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두 가지의 구상에 더하여 다양한 형태의 경영실험과 탄력적 운용으로 발전 모델을 제시하고 나아가 이것을 정책의 생산으로까지 이어가려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극단의 연습장을 들여다보면 그의 욕심과 그가 갖는 꿈을 조금이나마 짐작해 볼 수가 있다. 단원들은 일정한 시간에 하나둘 극장으로 모여든다. 이들 중에는 학교나 직장에서 바로 달려오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사물놀이나 한국무용을 위탁 교육받는 단원들은 그쪽의 트레이닝을 이미 받고는 땀이 식을 사이도 없이 달려오는 단원들도 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의 할 일을 찾아내어 하던 단원들이 운동복으로 갈아입으면 요가와 함께 다양한 신체훈련에 들어간다. 그리고 이어지는 발성과 화술 훈련, 그리고 작품 분석과 연습으로 이어지는 강행군은 새벽으로 이어지기 일쑤이다.

그의 올해의 목표는 유급 단원을 최소한 세 명까지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 그는 비전을 제시할 줄 아는 대표이고 단원들은 그런 그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낸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이루는 법을 알고 있다. 그게 그들의 장점이다.

오늘도 그의 목소리가 극장을 울린다.

"우리가 가는 길이 역사다."